

해남군, 고속도로·철도 교통망 확충 ‘속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예타 통과 해남서 광주까지 40분 소요 매년 142억원 부가가치 효과 무안고속철 연계 관광활성화

해남군의 장기성장동력을 뒷받침할 대규모 SOC사업들이 운곽을 드러내면서 땅끝해남이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해남군이 지역 장기성장의 기반이 될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에 군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망 확충이 빠른 속도로 추진돼 지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은 강진 작전에서 해남 남창까지 38.9km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조 5965억원이 소요된다.

육천면에 ‘해남 나들목’과 북평면에 ‘남해남 나들목’ 등 2개의 나들목(IC)이 생기고 종점부가 해남군이기에 때문에 명

칭도 ‘광주-해남 간 고속도로(가칭)’로 변경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을 거쳐 2028년 공사에 착공해 2034년 완공 예정이다.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해남에서 광주까지 40분대로 줄어들어 지역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골든타임 확보율이 유사 지자체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한 해남의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등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농수산물을 대도시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돼 물류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이 완료되면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로 매년 142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성-해남-임성을 연결하는 82.5km를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는 2025년도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오는 10월께 시험운전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후 7월이면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남군 계곡면에 들어설 철

도역사 또한 시험운전 기간인 10월께 준공을 마치게 된다.

현재 전기시설을 포함한 건축공사가 완료된 상황으로 해남에 최초로 철도가 지나는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도 77호선 마지막 연결 구간인 화원~신안 압해를 잇는 해저터널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돼 현재 공정률 20%를 나타내고 있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으로 서해안고속도로와 무안국제공항고속철도를 연계한 관광활성화에 가속도가 일 것으로 보인다.

관내 지방도 806호선인 마산-산이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사업비 1439억원을 투입, 16.7km를 시설하는 공사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6월 5.6km에 대한 1단계 구간을 착공했다. 화원 일반산업단지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물류량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과 동반상승 효과가 극대화되며 오시아노 관광단지,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해남 대흥사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도 착실하게 진행 중이다. 사업비 471억원을 투입, 5.1km를 시설하는 공사로 2027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흥사권역 관광지를 비롯한 기후변화농업연구단지, 제2스포츠타운의 접근성이 개선되게 된다.

해남군은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속철도(KTX) 해남노선 반영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해로군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전남도, 유관기관을 수시로 방문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은 최근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선정은 물론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및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교통망의 적기 확충은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 발전의 대동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19~22일 해수 침수방지 철저 당부 목포시, 비상근무반 편성·예찰

목포시는 대조기인 오는 19일 오전 2시~3시, 20일~22일 오후 3시~6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5.0m 이상 상승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고 18일 밝혔다.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안 저지대에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해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내장항 어촌신활력 증진 착수 해남군, 어항시설 보강·개선

해남군은 송지면 내장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내장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지난해 1월 공모에 선정돼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4월 기본계획 착수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달중 착공 예정으로 지난 11일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방향 설명과 마을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내장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정주유지형(유형3) 사업으로 2025년까지 국비 35억을 포함한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어촌마을의 어항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어항을 조성해 나가게 된다.

보유어선수(121척)에 비해 정박규모가 1/3정도에 불과해 기상악화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온 방파제를 60m 연장하고 물양장을 40m가량 확장하게 된다.

조명 설비설치 등으로 어항시설 보강 및 개선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신안군 관계자들이 콤바인을 이용해 수확된 참깨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6일 신안군은 비금면에서 참깨 기계수확 연시회를 열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참깨 콤바인 수확 일손 부족 해결 앞장

신안군이 지난 6일 비금면에서 참깨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해 콤바인을 이용한 참깨 수확 가능성을 제시했다.

18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참깨는 익으면 스스로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 기계수확이 매우 어려웠 대부분 인력으로만 수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물 중 하나였다.

나왔다.

신안군은 기계수확이 가능한 품종과 재배법을 적용한 참깨 전 과정 기계화 시범단지를 비금면에 20ha 조성했고 이번 현장 연시회를 통해 수확 과정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시범단지에 재배한 참깨품종(하

니울)은 2021년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다수확 품종으로 내탈립성이 강해 기계화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수확기가 빨라 신안군 대표작물인 시금치의 후작물로도 재배가 가능하다.

신안군은 참깨 전 과정 기계화 재배면적 확대와 단지조성을 위해 기계화에 알맞은 재배 기술을 정립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신안=홍일갑 기자

완도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생애 첫 접종 어린이부터 시작

완도군은 20일부터 인플루엔자 생애 첫 접종 어린이 대상을 시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바이러스 변이가 잘 일어나 매년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행함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의 경우 면역 획득을 위해 2회 접종이 필요한데 대상자는 생후 6개월 이상~9세 미만 소아 중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는 어린이이다.

1회 접종대상자는 과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력이 2회 이상 있는 생후 6개월 이상~13세 어린이이다.

어린이 2회 접종대상자는 보건기관과 위탁의료기관에서 20일부터, 어린이 1회 대상자 및 임신부는 10월 2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임신부의 경우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시 일반인에 비해 합병증 위험이 크고 임신 중 접종 시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6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효과가 있어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임신부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접종할 수 있으며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모 수첩, 임신 확인서, 임신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을 별도 지참해야 한다.

그 외 어르신, 성인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 10월 11일, 보건기관은 10월 28일부터 실시된다.

접종은 별도의 예약 없이 이뤄진다. 접종비는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은 무료이며 14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은 유료이다.

예방접종은 보건의료원, 12개 읍면 보건지소, 18개 보건진료소, 19개 병원에서 가능하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kdca.go.kr)를 통해 접종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완도=정태영 기자

9월 정기 재산세 16억4천만원 부과 완도군, 이달 30일까지 납부 당부

완도군이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18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3만6000건에 토지분 14억 5000만원, 주택 2기분 1억9700만원 등 총 16억4700만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 증가한 수치로 개별 공시지가의 전년 대비 0.04% 상승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택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이달 30일까지 은행 방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자동화 기기(CD/ATM), ARS(142211),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전자 송달은 600원, 자동이체는 300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9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쓰인다”며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30일까지 잊지 마시고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신안군, 탄소중립 도시 공모 선정 재생에너지 발전자원 활용

신안군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 1차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지역·민간이 협력해 탄소중립 이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1차 대상지는 지난해 예비 후보지로 지정된 전국 3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7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 심의를 거쳐 총 13개 지역이 선정됐다.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신안군이 선정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단계 다가서는 중이다.

신안군은 공모에서 ‘Net-Zero Leading Island 신안군!!’을 슬로건으로 채택했으며 넷제로는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제거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0이 된다는 뜻으로 순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신안군의 의지가 표현되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지정되면 신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및 갯벌, 산림조성을 통해 탄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자원을 이용해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신안군으로 발돋움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